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 李衡祥목사의 神堂 첼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

玄 吉 彦*

目 次

1. 문 제	4. 신당 첼폐 배경과 그 과정
2. 신당 첼폐에 대한 인식의 양면	5. 갈등 구조와 그 극복
3.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신당	6. 진실의 해명으로서 역사와 문학

1. 문 제

이 글은, 이조 속종 때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는 李衡祥¹⁾ 목사의 치적 중 神堂 첼폐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인식을 설화를 통하여 논의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화적 인식의 문제와 아울러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쓴다.

이형상 목사의 치적 중 신당 첼폐에 대하여서는 풍속 개량과 우민 교화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耽羅紀年²⁾에 의하면 광양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助教授

1) 李衡祥 (AD 1653 ~ 1733), 경북產. 25세 生員이 되고, 28세 文科別科에 中第하여 주로 外職을 거쳐 76歲에 戶曹參議에 이름. 만년에 고향 永川에 浩然亭을 구축 일생을 마쳤는데, 正祖 20年 조정으로 부터 清白吏로 錄選됨. 49세에 제주 목사로 부임 51세에 파직당함. 權寧澈, 《瓶窩 李衡祥 研究》(韓國研究院, 서울, 1978)

2) 金錫翼 (AD 1885 ~ 1956)에 의하여 편술된 이 책은, 고려 태조 때부터 이조 광무 10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일들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인데 후진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당 등 삼읍에 걸쳐 있는 淫祀와 절집〔佛宇〕 130 여 개소를 헐고 무당들 400 여명을 농사짓게 조치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이런 일로써 백성들을 어리석은 습속에서 벗어나게 한 이목사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였고,³⁾ 순조 19년(1819)에는 이형상 목사의 이러한 제주 치적으로 유생들의 진정에 따라 永惠祠에 배향되기까지 하였다.⁴⁾ 권영철에 의하면 이렇게 신당을 철폐하고 무당을 농사짓게 조치하자 제주 사람들이 공의 업적을 기리어 공덕비까지 세웠다고 하였다.⁵⁾

이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과연 일반 민중들의 의식과 합치되는 것인가.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온 신당이 한 목민관의 행정력에 의하여 철폐되는 사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수용하였던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제시한 긍정적 반응은 유학자에 의하여 쓰여진 기록과 이목사 자신이 쓴 南宦博物誌⁶⁾에 의한 것이라 할 때, 그러한 의문은 제기할 만하다.

유학자인 목민관의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후세 사람들 특히 유학자나 지식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기록만으로, 그러한 일의 역사적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결코 그러한 기록 자체는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진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술할 수도 없지만) 기록자의 정신속에서 한번 굴절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 논의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해석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⁷⁾ 이목사의 치적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뒤받침하는 일로서, 이목사의 민중 교화를 위한 신당 철폐 사실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몇 편의 전설들을 찾아볼 수 있다.⁸⁾

3) 金錫翼, 嶺南, 속종 28년條.

4) 《耽羅紀年》, 순조 19年.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P. 429) 참조.

5) 權寧徹, 嶺南, P.14.

6) 李衡祥이 제주 목사로 일하던 50세 때 제주도의 여러 문물의 사항을 서술한 책. 博物의 目錄은 邑號, 路程, 海, 島, 候, 地, 勝, 蹟, 姓, 人, 俗, 文, 武, 田, …… 吏, 行古, 名宦, 등이다.

7) E.H. Carr,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P.22.

이들 전설에는 이목사의 치적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백성의 반응과 행정적 조치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허구적 설화에서 문헌의 기록과 상충되는 설화 향유자들의 의식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무가치한 것인가. 허구적 설화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역사의 인식은, 이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민중들의 내면적인 의식을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 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허구적 설화가 보다 더 역사적 사실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것은 역사가들은 상상력을 구사하여 규명 중에 있는 사건들을 통찰이나 직관에 의해 다시 살리고 재창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간의 행위가 내적 정신 상태의 표현이며 따라서 역사의 이해는 이 정신상태의 재경험에 의하여 이뤄질 때 보다 정확하게 역사적 실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⁹⁾ 역사 이해의 방법에 대한 신뢰에서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역사의 존재 이유는 인간 문제에 돌아온다. 아무리 역사 서술이 집단적인 구조를 가져서¹⁰⁾ 개별적인 개인의 진실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집단의 구조에서만이라도 총체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조 시대의 역사가 지배 이념의 주체자만을 위한 서술이어서는 한 시대의 집단적 구조 속에 역사가 서술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따라서 역사가 한 시대의 진실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된다. 특히 제주도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변방인 제주도의 역사는 사회 지배 이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민중의 생활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중세 사회의 변방 지역의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글의 의도는 이목사의 치적에 대한 해명이나 평가 자체에 있는 것은 결

8)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 두 편, (PP.191~3, PP.206~8), 《韓國口碑文學大系》9-2에 한 편, (PP.721~2). 그리고 《學術調査報告書》七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에 한 편 (PP.103~109)이 있다.

9) 車河淳, “歷史의 文學性”, 車河淳 等, 《歷史와 文學》(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1), PP.34~34.

10) 李相信, “역사와 문학과의 관계”, 李相信 編, 《文學과 歷史》(民音社, 1982), P.18.

코 아니다. 지나간 역사를 좀더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 좀더 깊고 그리고 새롭게 포괄적으로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어떤 것이라는 칼 호이쎄(Karl Heussi) 말을 믿으며¹¹⁾ 이 변화 생성에 문학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름해 보는 것이 본래의 의도이다. 또한 이 목사 치적에 대한 설화들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문학이 인간의 진실의 해명을 위하여 어떻게 서로 돕고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비적 작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 신당 첼폐에 대한 인식의 양면

이제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첼폐 상황과 그 일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긍정적 인식

《남한박물지》에 의하면, 제주에 대한 그의 인상 중에 두드러진 것이 도민들의 무속 신앙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 섬의 곳곳에 목석으로 神祀를 만들고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무당들이 독기(蠟旗)를 앞세워 모시고, 나희(難戲)를 꾸미고 팽과리와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동네를 돌아다니면, 관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물품들과 곡식들을 바쳐 제사를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든 질병과 생사화복을 淫神에게 구하여 극복하려 하므로 자연 무당들이 횡포가 심하며, 그 무리 또한 많아 백성

11) A. Schaff, *History and Truth*, 金澤賢역, (靑史, 1982), P.297.

12) 《耽羅巡歷圖・南宮博物》(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중 南宮博物의 誌俗條에 尙淫祀의 풍속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PP.113 ~ 116)

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하였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재물을 강요하고 신당에 소를 잡아 제사 지내게 하고 심지어 마소를 탈취하는 등의 행패가 극심하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 신당 129 곳과 개인 집에 있는 禱神之物과 곳곳에 있는 신당과 관제된 모든 것들, 신당을 섬기는데 쓰여졌던 모든 기구 의복까지 부수고 불살라버리는 등, 신당 철폐를 강행하였고,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무당들이 무당노릇을 못하게 하였다.¹³⁾ 이에 무당들이 스스로 그 일에 손을 떼고 농사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감행한 이목사에 대하여 《탐라기년》에는, 과감정직하여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힘썼으므로 섬사람들이 그의 덕을 기리 간직하여 德化民碑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직접 음사 철폐에 대한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송하였다. 鼻亭神祀를 헐었던 薛存義의 일과 비교하여 그가 제주에서 그 많은 음사를 헐어버린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 모든 조치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¹⁴⁾

이목사의 신당 철폐 치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비단 《탐라기년》의 저자의 개인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순조 19년(1819년)에 유생들의 진정에 따라 목사 趙義鎭이 이형상과 김정을 영혜사에 종향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일은, 이목사의 치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바로 당시 사회의 지식 계층이요 상층계층인 유생들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목민관이나 유생들은 모두 이조사회의 지배이념을 추종하고 확산시키고 피지배계층인 민중들에게 그 이념으로 교화시키는 일을 맡은 사회의 주체적 계층에 속한 부류이다. 그러므로 이목사에 의하여 이뤄진 신당 철폐 작업이 유생들의 호응을 받고 그 치적에 대하여 후에까지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겨야만 했다. 또한 그를 영혜사에 추종하는 일은 바로 유생들이 자기 이

13) 嶺表 (P.115)에 의하면, 무당들에게 관가에서 쓰는 綿布를 감당하도록 하자,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고 결국 모두들 무당짓을 스스로 버리고 농사짓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4) 《耽羅紀年》, 숙종 28년(1702년)일.

념을 공고하게 유지시키고 널리 확산시키는 일과 통한다. 그러므로 문헌 기록은 사료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일반 민중들이 인식은 어떠했던가.

2.2. 부정적 인식

이목사 치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설화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설화는 유생들이나 목사같은 지배 계층의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를 구사할 줄 모르는 무식한 계층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학적 진실은 살아 있는 것이다. 사회와의 갈등, 삶에의 갈등은 그들 자신의 문학적 표현 수단인 이야기를 통하여 엮어져서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면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된다. 여기에 설화가 지니는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의미가 있다.

1. 전설 -〈가〉¹⁵⁾

이 전설은 김녕뱀굴 전설과 비슷하다. 김녕 뱀을 퇴치한 사람은 이형상 목사이며, 그는 골총[古塚]을 수리하고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수었는데 나중에 뱀의 복수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은 김녕뱀굴 전설과 奇慶목사 전설에 이형상 목사 전설이 습합되어 이뤄졌다는 데 흥미가 있다. 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녕 뱀굴 뱀을 퇴치한 이목사는 그 뱀의 흉함으로 육지로 떠나려 하나 태풍이 불어 못 떠났다.
- ② 이목사는 당도 많이 부수고 골총도 많이 치산해 줬다.
- ③ 밤에 골총 귀신들이 나타나 날이 밝기 전에 떠나라고 해서, 무사하게 제주를

15) 《口碑文學大系》9-1, (P.191~3)

떠날 수 있었다.

- ④ 이목사는 뱀들의 흉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죽은 후 그의 무덤에는 뱀들이 이목사 원수 갚으라고 늘 나와 덩굴었다.

비록 김녕뱀굴 전설 인물로 이목사가 바뀌지긴 하였으나, 그가 퇴치한 뱀의 (혹은 뱀신의) 복수에 찬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통하여, 이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 전설 - <나>¹⁶⁾

이 전설은 세종 때 기전 목사 이야기에 이형상 목사 이야기가 습합되었다.

- ① 기전 목사는 골총들을 다 수리하였고 당과 절을 많이 부셔버렸다.
- ②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려 할 때, 당귀신들이 복수로 바람을 불게하여 떠날 수 없었다.
- ③ 골총 귀신들이 도움으로 바람이 잔잔한 틈에 떠났다.
- ④ 배가 막 육지에 닿으려할 때, 당귀신들이 사실을 알고 쫓아왔으나 이미 육지에 내린 후여서 복수를 하지 못했다.

비록 기전 목사의 이야기로 구술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당과 절을 철폐한 이형상 목사와 당신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 있다.

당을 철폐한 이목사에 대한 당신들의 이러한 복수의 의도는 당신의 의도이기 전에, 바로 당신을 숭상했던 사람들의 상상력의 소산으로 이뤄진 허구이면서 내면적 진실이다. 더구나 위 두 전설에서 이 목사나 기전 목사가 골총신들의 도움으로 당신이나 뱀신들의 복수에 찬 흉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골총을 治山했다는 윤리적인 측면과 목사들의 목민의식이 자연스런 결합을 보이면서, 이들이 바로 당신이나 뱀신과 갈등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6) 윗책, P.206 ~ 208.

3. 전설 - 〈다〉¹⁷⁾

이 전설은 앞에 든 두 이야기에 비해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면서 그 플롯도 점연하다.

- ① 영천 이목사는 평양감사를 마다하고 당과 절을 철폐할 생각으로 제주 목사를 자청하여 왔다.
- ② 부임 즉시 곳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 ③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신령이 세기로 유명한 신당의 신들을 퇴치하고 섬 안의 모든 당과 절을 철폐하였다.
- ④ 밤에 현몽하여 나타난 골총 귀신의 청원을 듣고 그의 무덤을 치산하여 주었다.
- ⑤ 그 골총 귀신의 도움으로 당신들의 복수를 피해 무사히 제주를 떠날 수 있었다.
- ⑥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미 두 아들이 당신들의 복수로 죽어 있었다.

이 전설은 〈가·나〉 전설과 같이, 기전 목사의 치적이라 하는 골총 치산 모티브가 이목사의 신당 철폐 이야기에 습합되면서 플롯의 전개가 보다 자세한 점이 특이하다.

우선 신당 철폐는 이 목사 도입 전부터 그가 이미 마음먹은 바임을 강조하면서, 부임 즉시 그 일을 위하여 곳의 실태를 파악하는 이야기는, 이 목사의 신당 철폐 의지를 돋보이게 한다.

이 전설에서 특이할 점은, 신령이 세기로 이름난 堂神을 퇴치하는 과정과, 고향의 두 아들이 당신의 흉험에 의하여 죽었다는 일이다. 즉 이목사의 神堂 철폐 의지와 당신들의 복수 의지, 즉 이 목사와 당신들의 대립 갈등이 날카롭게 형상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7) 《學術調査報告書》七輯, PP.103 ~ 109.

전설-〈가〉는 김녕 뱀굴의 뱀의 흉험이 이 목사를 몰락시키지 못하여 그의 무덤에 덩굴면서 원한을 삭이고 있을 뿐이고, 전설-〈나〉에서는 당신들의 복수 기회를 놓치므로 그 의지만을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하여, 이 전설에서는 그 복수를 단행하여 신당을 철폐한 이 목사의 몰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장을 달리하여 논의하겠지만, 한마디로 지식 계층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하여 전설 향유자들은 극렬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설화는 허구적인 이야기이므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일까. 또한 설화는 심심풀이 이야기로 생각하여 역사적 사실의 해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쓸모없는 거짓말 이야기가 어떠한 기록의 힘이나 다른 무엇이 도움이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단지 이야기의 재미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죽은 이야기는 전승되어 내려올 수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정신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전설의 이러한 면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이형상 목사의 제주 신당 철폐 문제를 더 자세하게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즉 신당 철폐라는 하나의 파격적인 정책이 왜 단행되어야 했으며, 그 일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통하여, 도민들의 진정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 설화의 문제를 접합시켜 볼 때, 지금까지 논의된 신당 철폐에 따른 전설의 의미가 뚜렷해질 수 있다.

우선 제주 사람들의 삶과 신당이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행정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신당

3.1. 제주 사람과 신당

제주에 신당이 많고 무속이 성행했다는 기록은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仲庵 金淨은¹⁸⁾ 그의 《風土錄》에서, 제주 사람들은 무속신을 몹시 숭배하므로 무당들이 많고, 이들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빙자하여 많은 재물을 쉽게 탈취하는 등의 행패를 자행하기에 이르고 있다. 사람들은 명일이나 朔望, 七日에 짐승을 잡아 음사에 제사지내는데, 그 음사 수가 300여 소에 이르고 해마다 늘어나며 이로 인한 허황스럽고 그릇된 일들이 자꾸 더해만가, 혹 질병이 나도 약을 쓰려 않고 이 신에 빌어 나오려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¹⁹⁾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에도²⁰⁾ 위와 같은 풍습은 여전하다고 하면서, 지금도 廣禳, 遮鬼 등에 있는 음사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지방 사람들이 이들 귀신을 하늘 같이 받들어 모셔 섬 사람들의 생활을 이 귀신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²¹⁾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²²⁾

18) 金淨(1486~1521)은 기묘사화로 중종 15년 8월에 제주에 유배와 다음 해 10월까지 귀양살이를 하면서 이 풍토록을 썼다.

19) …醜崇 祠鬼男巫甚多嚇人災禍取財如土名曰朔望七七日(初七, 十七, 二十七) 必殺爲牲爲淫祠幾至三百餘所歲增月如加妖厲騰人病甚畏服藥謂爲鬼怒至死不悟…….

20) 선조 34년 吉雲節이 제주 반란 음모 사건 처리하기 위하여 성균관 典籍이었던 그가 제주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의 전문록.

21) …此俗今猶不革如廣禳遮鬼等淫祠簫鼓不絕土人敬畏如天(……)疾病甚畏服藥謂鬼怒 至死不悟…….

22) 李 健의《濟州風土記》, 李元鎮의《耽羅志》, 金錫翼의《耽羅紀年》, 李衡祥의《南宮博物誌》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무속신앙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재물을 바치고, 생사화복을 그것에 의탁하고, 또한 민속놀이까지 무속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²³⁾ 제주 사람들은 숲이나 내. 못, 언덕, 무덤, 큰나무, 큰 바위에 신을 모셔 매해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무당들이 앞장을 서서 신기를 내세워 나희를 꾸미고 쟁과 복을 치며 무리지어 동네 여러 집들에 드나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을 바치며 제사지내고, 또 2월 초에 귀덕 김녕 등지 마을에서는 신대〔神木〕를 여러 개 세워 신을 맞아 제사를 지내며, 또한 애월 등지에서는 말머리(馬頭) 같은 형태의 떼배를 구하여 울긋불긋하게 비단으로 장식하고 약마희(躍馬戲) 놀음을 하면서 신들을 즐겁게 하여 보름까지 지내는데 이를 연등이라 이룬다고 했다. 이러한 놀이는 제주의 여러 지방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를 이룬데, 그러한 놀이에도 무속적인 속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속신앙을 단순히 사람들의 우매한 처사로만 돌려버릴 수 있을까. 김상헌의 《남사록》에 충암의 水精寺 重修記를 들어 이 지방 민속이 비루하여 어리석고, (….) 무릇 병이 나거나 집안에 상을 만나거나 또는 화나 복에 대하여 모두 당신에게 기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뱀신 숭배 풍습이 성행하고 하면서 이를 야만스런 풍습이라고 지적하였다.²⁴⁾ 이견도 그의 《제주풍토록》에서 이러한 무속의 성행에 대하여 심히 괴이한 일이라 하였는데,²⁵⁾ 이와 같은 지적은 제주의 풍습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에서 연유된 것이다.

무속신앙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온 일에 대하여 단지 어리석고 깨어나지 못한 탓으로만 돌려버릴 것이 아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서 비로소 무속 신앙의 생활적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23) … 俗尙淫祀乃於山麓川池丘陵墳塋木石俱設神祀每歲元日至上元巫覡共擊(……) 歸德等地立木竿十二迎神祭之(……) 以娛神至望日乃罷謂之然燈 ….

24) … 又冲庵水精寺重修記云 (民俗鄙而癡野機而好殺凡有所祈懷病厄得喪禍福一聽於神(…) 村人臨老得病 彌留危苦者其子女軌虔誠祈禱若不可廖 願鬼速令就死毋爲久苦也(…) 此蓋蠻風之未盡變者….

25) 李健, 《濟州風土記》, 제주도교육위원회, 윗책, P.199.

3.2. 황폐한 삶

제주 사람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황폐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불모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데, 왜구의 침탈, 행정력의 부재로 인한 가뭄 주구하는 관리들의 횡포,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갖가지 일들이 더더욱 제주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축복받은 땅이 되어 과거의 제주의 자연적 조건이 어떠하였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옛 기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冲庵은, 산길이 험하고 돌자갈이 많아 평편한 땅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였고,²⁶⁾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봄과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폭풍이 자주 인다고 하였다.²⁷⁾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해 결려 닥치곤 하였다. 종종 때 제주 목사를 지냈던 金錫哲은, 제주섬은 돌산 위에 흙을 덮어놓은 것과 같은 땅이므로 2, 3일만 비가 안 오면 가물고 4, 5일만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 자주 흉년이 든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또 正言 崔克成도,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었을 뿐 아니라, 흉년이 심하여 굶어 죽은 자가 벼개를 맞대어 누어있는 것과 같아, 점의나 대점에는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다고 종종께 아뢰었던 기록이 있다.²⁸⁾ 현종 11년에는 태풍이 제주에 몰아쳐 교량과 인가와 길이 무너지고 해일까지 덮쳐 초목이 다 말라죽는 참사가 일어났었다. 그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조정에서 구휼미를 보내어 구제하나 그것으로 감당하질 못하였다. 이에 굶주린 자들이 산에 올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나 이미 열매가 다 되고, 발과 등에 내려

26) 金淨, 《濟州風土錄》, 蕓畵, P.10. 《南槎錄》(蕓畵, P.51.)에서도 “地多石岩鋪土數村土性浮燥…”이라 하여 토질이 농사에 부적당함을 말하고 있다.

27) 《南槎錄》, 蕓畵, P.49.

28) 《李朝王朝實錄》, 中宗 15年 10月 18日. 其地方乃石山戴土者也二三日不雨則過旱四五日連雨則過澇以此易致凶荒. (….) 疾大起人畜多死非徒此地也年凶太甚死者相枕如旌義大靜人戶皆空云 …….

와 채소나 풀뿌리를 캐어먹으려 하나, 그것도 다 된 형편으로, 사람들이 남의 마소를 도적질하고 무뢰한들이 각처에 날뛰어 섬 안은 더욱 어지럽게 되어, 그 참상이 극심해 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²⁹⁾ 이러한 기록은 한 예에 불과하다.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자연적인 불모성에서 오는 제주민의 고통이 어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비단 자연 조건의 불모성만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왜구의 침탈과 행정력의 부재로 인한 관리들의 횡포이다. 왜구의 침탈에 대비하여 군역을 담당해야 하였는데, 그 일이 섬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南槎錄》에 의하면, 수륙군이 모두 5,645명에 이르므로 7·80 노인이 되어도 군역에서 면제되지 못하여, 또는 어린 아이들도 16~7세만 되면 군적에 올라 있게 되어 그 피해는 실로 큰 것이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부역을 피하려 도망갔기 때문에 군사 수는 점점 줄어든 형편이라 하였다.³⁰⁾

끊임없는 왜구의 침탈에 대비하여 부역이 심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았다. 그렇게 침탈에 대비하나 자주 쳐들어와 노략질 등 행패 때문에 해변가에 사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 허나 보다 더한 것은 행정력의 부재에 따른 주민이 당하는 고통이었다.

우선 중앙 관서에 제주의 특산물을 진상하여야 하였다. 왕조실록에도 그 진상품의 감량을 호소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마는 그것은 주민들에게 극심한 부담이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진상 품목의 내용을 보면, 매년 別進上으로 槌鰓 3,030 척, 條鰓 230 척, 引鰓 910, 오징어 680, 司宰監 진상물로는 大灰全鰓 500 척, 中灰全鰓 945 척, 小灰全鰓 8,330 척, 그리고 別貢物로는 대회전북 1,000 척, 중회전북 700 척, 大靜에서 대회전북 500 척, 중회전북 230 척, 旌義에서 대회전북 500 척 중회전북 195 척인데, 이는 三邑이 어부나 해녀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데, 이 수량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이 수량을 진상하려면 이보다 많은 량을 거두어 들여야 할 형편

29) 《李朝王朝實錄》, 顯宗 11年~12年.

30) 《南槎錄》, 續編, P.163.

이었으니 온 섬에서 나는 해산물들은 모두 여기에 충당하여야 하였다.³¹⁾ 또 제주 특산물인 굴의 진상 내용은 이렇다. 1년 24運에 진상하여야 할 굴의 수량은, 相子 960, 柑子 29,470, 金橘 1,420, 乳柑 2,800, 庭橘 3,400, 山橘 590 ……등 그 수량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므로 매년 7, 8월에는 목사가 각 마을 굴나무 있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열려있는 굴을 모두 조사하여 장부에 적었다가 익을 철이 되면 그 여름에 조사된 수량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수량에 미치지 못하면 책벌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므로 굴나무를 가진 민가에 굴 보기를 독약과 같이 하고 무슨 수를 써서 굴나무를 없이하곤 하였다.³²⁾ 이러한 일은 사헌부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제주 사람 崔風이 명절날 자기 집 감굴을 따서 선조의 제사상에 올렸는데, 안무사가 다 헤아려 둔 굴을 도적질하였다 하여 곤장으로 벌을 내렸다. 이렇게 도의에 어긋나고 행정권이 남용되는 사례를 더 조사하여 보고 하라고 왕이 명을 내린 기록도 있다.³³⁾

해산물과 굴 외에 진상품에는 별 물품들이 다 포함된다. 매년 목사의 별진 상으로 향심 28말, 백랍 24편, 동자향심 7말, 치자 120조, 목사 도입시 진상품으로 백랍 20편, 목사가 바뀔 때 백랍 48편, 치자 20조, …… 이런 등속은 군사들에게 책임져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외에 사소한 것은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 貢獻條에 보면 중앙 각 부서별로 철따라 경우에 따라 바치는 물품의 종류며 수량이 회한한 정도이다. 이러한 물품의 징수를 위하여 중간 과정에서 더 많은 수량을 받아들여야 하였고, 이를 서울관서로 진상하는 일이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서 죽어 고생을 면할까 탄식할 지경이었다.³⁴⁾

여기에 더한 것은 행정 관리들의 횡포였다. 위로 목사로부터 아래로 아전

31) 《南槎錄》，원책，PP. 54 ~ 55.

32) 원책，PP. 148 ~ 149.

33) 李朝王朝實錄，世宗 8年 5月 15日.

34) 《南槎錄》，원책，P. 163. 〈…歎苦之狀聞之慘惻至隣族不堪侵徵之毒無所告相與祈祝日何時死去得免此苦云云…〉

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밥과 같이 취급하였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원이 되기를 원했고, 하다못해 군대의 수비장이나 아니면 通印 貢生이라도 되기 위하여 뇌물을 썼으며,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뇌물로 처리하려 하여, 그러므로 강자는 약자를 누르고 사나운 자는 어진 사람을 점탈함이 예사고, 관원이 탐함이 마치 길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무리와 같다고 冲庵은 말하였다.³⁵⁾ 민가의 소를 제멋대로 잡아 술잔치에 썼고, 쓸 만한 말들은 모두 빼앗아 갔다.³⁶⁾ 이러한 단적인 기록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들은 바에 의한 것일 때, 실지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한 피해와 억눌림은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도와줘야 할 관리들의 오히려 백성들의 삶과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는 상대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관리들에 대하는 인식이 어떠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수없이 많은 민란이 일어났고, 이 때마다 무력으로 또는 달래어 진압하곤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제주 소요의 근본 원인이 朝廷의 失策에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순조 13년(1813)에 일어난 梁濟海의 난에 즈음하여 왕은 그런 백성의 소요가 조정의 실책으로 자인하고 섬의 행정을 맡은 신하들은 교화로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정사를 시행한다면 비록 거칠고 못된 성질을 가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순화되어 이런 변괴가 있었겠느냐고 통탄하였다.³⁷⁾

이러한 행정 부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아들 낳기보단 딸낳기를 더 원할 지경이었고³⁸⁾ 산자보다 죽은 자를 더 복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생활이었다. 여기에 무속 신앙이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유일한 자기 구제의 길이었다.

패쇄된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황폐할수록 무속신앙과 같은 저급 종교는 번장하기 마련이다. 의지할 곳 없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당시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당신을 신앙함으로 당신과 하나가 되는 정신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게 된다.

35) 《濟州風土錄》, 원제. PP.9~10.

36) 《南槎錄》, 원제, P.59.

37) 《...實錄》, 純祖 13年 12月 3日.

38) 《南槎錄》, 원제, P.53. 〈貢獻商船前後結繹海路險隔屢致水沒故州人以生女爲重〉

이 점은 제주 당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에서 보는 당신의 일생이 황폐함이 바로 제주 사람들의 그것과 상통하는 데서 이해할 수 있다. 추방과 좌절과 배고픔의 신들이 바로 제주 당신들인데 제주 사람들은 이들과 하나가 됨으로 현실적인 고통을 위무받게 된다.³⁹⁾ 여기에 당신 숭배의 무속은 성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당신 숭배의 무속 신앙이 제주 하층 계층인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내려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탓만이 아니라란 것을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 아래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해 지는데,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설화가 지니는 의미가 새로와질 수 있다.

4. 신당 철폐 배경과 그 과정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가 과연 풍속 개량과 백성들의 교화에만 그 목적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철폐의 배경과 과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밝혀질 것이다.

4.1. 신당 철폐의 배경

신당 철폐의 표면적 의도는, 지방 행정을 책임맡은 목민관으로서 지방의 풍속을 개량하고 백성의 교화에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전통적인 유교 선비로서 무속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구나 그것이 자행하는 백성들에 대한 피해 또한 크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목민관으로서 무속을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목사는 《남환박물지》에서, 제주의 무속 성행 사실을 기록하는 중에, 이를 “蠻習”이라 통탄하였고, 또한 천하 만고의 병폐이며 실로 무익한 일인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를 신앙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⁰⁾

39) 필자의 《제주도장수설화》 (홍성사, 1981), pp. 24 ~ 28.

40) 註, 12)

이런 기록에서 무속에 대한 그의 부정의식이 보다 강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정을 수행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신의 입장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무당들의 행패에 가까운 부작용을 통탄한 심정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를 철폐하려는 그 자신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무속 신앙이 도민 생활에 뿌리박혀 가자 무당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거만하며 재화를 구실로 사람들을 위협하다싶이 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취한다는 기록이 있다.⁴¹⁾ 더구나 이형상 목사가 쓴 《남환박물지》에서, 무당들의 행패와 그 사회적 병폐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무당들이 백성들을 誣惑하게 하는 일은 천하만고의 병폐라 하면서, 무당들은 무뢰한의 무리들로서 堂漢이라 칭하여 서로 결속하니 그 수가 천이 넘는데,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강요하고 또는 신당에서 남의 소를 잡아먹기까지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위하기 위해 돈이나 재물을 바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손발을 결박하여 놓은 후 약탈을 자행하고 심하면 마소를 빼앗아 가기까지 한다. 그뿐 아니라 전답을 탈취하여 나누어 갖고 신당에는 진주를 쌓아둘 정도라 하였다.⁴²⁾ 이러한 무당들을, 不純雜輩들이 군집한 무리로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한 목민관으로서의 그의 철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이면적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행정력의 강화라는 행정관리로서의 권력 비상의 의지이다. 백성들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황폐할수록, 더구나 그 이유의 하나가 행정력의 부재로 인한 관원의 가렴주구에 따른 횡포라 할 때, 일반 민중들과 관원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⁴³⁾ 여기에 행정력의 약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나타난 바대로, 무당들이 거만하고 행패가 심하였다는 것은, 민중들에 대한 무당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관리들보다 더 강하였음을 의미한다.

41) 《南樓錄》, 硯齋, P.53. 《濟州風土錄》, 硯齋, P.8.

42) 註, 12)

4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硯齋 (P.108)에 “...官人於道則奔匿不現其域未及避者俯伏道傍不敢舉頭...”라 했는데 이는 백성과 관리와의 거리감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무속신앙이 민중들의 삶의 뿌리라 할 때 무당들이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을 필연적인 사실이다. 더구나 그들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 그 수가 천명이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행정 수행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들이 신당 철폐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백성들이 관청과 떨어져 당신을 위하고, 무당들이 오히려 관리보다 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의 은총을 모르고 왕의 다스림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목민관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형상 목사의 제주 신당 철폐는 풍속 개량과 백성의 교화란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목민관으로서 행정력의 강화를 위하여 단행하여야 했던 일임은 자명하다. 이 점은 민중들 속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에 대한 이 목사의 인식과, 백성을 주도하던 風雲雷雨壇 致祭를 폐지하였던 조치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절궁의 성격을 띤 놀이라고 생각되는, 매년 초하루에서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무당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어 나희를 꾸미고 신기를 내세워 쟁과리와 복을 치며 동네 집집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얻어 복을 빌고 제사를 지내는 놀이를 淫祀를 받드는 일로 보았으며, 연등놀이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가졌다.⁴⁴⁾ 또한 제주 置郡 때부터 민간에서 주도하여 시행되어오던 風雲雷雨壇의 致祭를 이목사는 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지 않는 민간 행사라 하여 폐지하였었다. 그러나 폐지한 이후에 제주에는 해마다 기근과 질병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곤궁에 빠지게 되자 도민들이 다시 그 복귀를 목사 鄭東俊에게 청원하였고 목사는 이를 조정에 품의하자 왕이 이의 복귀 설치 치제를 명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나 도민 스스로에 의해 행해지던 섬의 행복과 번영을 天神에 기원하는 風雲雷雨壇 致祭까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폐지한 것은, 단지 그 놀이나 행사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민중의 자생적 의도에서 이뤄지는 민중들의 행사라는 점 때문이다. 이 목사는 風雲雷雨壇의 致祭는 폐지하면서 관 주도의 漢拏山神祭를 왕

44) 註, 23)과 附錄, P.113.

45) 《...實錄》, 肅宗 45년(1719) 11月4日.

의 윤허를 받아 새로 지내기 시작하였다. 즉 한라산이 명산대천 祀典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 목사가 이 사실을 예조에 다시 재고하여 주도록 아뢰자, 예조에서는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國典에 올려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명산에 제 지내지 않음은 예가 아니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 봄 가을철에 다른 예와 같이 山川祭를 지낸다는 중론에 따라 왕이 윤허하였던 것이다. 이에 치악산과 계룡산의 山祭例에 준용 제 지내게 되었다.⁴⁶⁾

이와 같이 민중 주도의 민속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백성 주도의 山川祭는 폐지하면서 새로이 한라산신제를 관 주도로 시작한 것은, 모든 행사가 관이 주도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가의 의식 때문이다. 관 주도의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일반 민중의 생활과 의식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려는 내면적 의도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신당을 철폐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4.2. 신당 철폐 과정

이형상 목사는 관과 멀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곤궁한 백성의 생활을 위하여 행정 개혁을 중앙에 진정하였다. 그것은 행정가로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물론 피폐한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줘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큰 일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 일이 큰 논의거리가 될 수 없으나, 당시의 목민관들의 행정 실상으로는 이 목사의 그 일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관리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관과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목사가 왕에게 그 시정을 아뢰어 윤허받은 일 가운데 직접 백성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장의 마소는 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죽거나 잃어버리는 마소의 수를 목자가 변상을 하게 되므로 변상 능력이 없을 경우에 부모 처자 동기간을 팔면서 변상하는 예가 많아 그 피해와 병폐가 극심하므로 변상을 반감하여주고 팔린 가족들은 되돌려 주도록 한 일.

46) 원제, 肅宗 29年(1703) 8月 29日.

② 해녀들이 잡아 바친 전복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한 일. ③ 관리들의 봉급을 올려줘 민폐가 없도록 한 일. ④ 변방에 근무하는 군사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 일. ⑤ 기한이 다 되 낡은 戰船을 제주 三邑에 나누어 주어 운항하게 함으로 민폐를 없앨 일. ⑥ 三姓司에 돈을 내주고 제물은 관에서 대어주어 민폐를 없앨 일. ⑦ 도민의 양자상속에 대한 일을 제주 목사에게 위임하여 도민의 편이를 도모하게 할 일 등이다.⁴⁷⁾

이러한 일들은 오래동안 백성들을 못살게 만들었던 악법들임은 틀림이 없다. 이에 유생 무사 및 낮은 벼슬아치 또 각 면의 유지들과 각 마을 대표자들 800명이 모여들어 북향사배 성운을 감사하고 목사의 업적을 기리면서 자발적으로 신당 철폐에 앞장서, 삼읍에 널려져 있는 129 곳의 신당을 부수고 당신 숭배에 따르는 모든 도구들을 불태우거나 없애 버렸다.⁴⁸⁾ 이목사의 백성들을 위한 행정이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악습을 철폐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행정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고, 목민관으로서 권력 비상의 의도를 충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당 철폐가 단지 풍속의 개량 백성의 교화라는 의도 외에 목민관으로서의 또 하나의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당은 우매한 백성의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것이기 전에 그것은 관과 떨어진 민중들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목사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 왕의 권력에 상대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지방행정 책임자인 목사나 지방 수령들은 그 지역에 신령이 센 음사를 철폐하는 일은 바로 그 자신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일이 되며, 더욱 그 음사가 누구에 의하여도 흥행 때문에 철폐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 비상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많은 설화나 문헌야담에서는 용기있는 지방 수령들이 신령이 센 음사나 요괴를 퇴치한 이야기가 많이 전하며, 이 경우에 대부분 지방 수령이 승리하고 음사나 요괴는 패배 몰락하는 결말을 갖는다.⁴⁹⁾ 이런 경우에 이야기는 관리의 권력 비상의 의지와 음사나 요괴 퇴치로

47) <... 南宮博物>, P.115.

48) 원재, 같은 곳.

49) 이러한 이야기 중 중요한 것으로는 “밀양 아랑자 전설” <民俗綜合報告書> (경남편, P.1496), “鳥嶺 淫祠 철폐 이야기” <靑邱野談> 卷四, (25 ~ 26), “朴世茂取城隍神 旗竿燒火” <大東奇聞>, 卷一, (五〇) 등이 있다.

인하여 시혜를 받는 민중들의 마음이 합치된 데서 이뤄진 것이다.⁵⁰⁾ 여기에 퇴치 주체자의 모습이나 의도는 강하게 부각되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의 전설의 결구는 이와 전혀 상반된다. 퇴치자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요괴나 음사의 흉험에 의하여 퇴치자가 몰락하는 결말로 이야기가 엮어져 나간다. 그 단적인 예가 “김녕 뱀굴 전설”과⁵¹⁾ “이형상 목사 음사 철폐에 대한 이야기” 들이다. 여기에 관리들의 권력비상의 의지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힘이 설화 향유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아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이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일반의 의식과는 상반된 설화적 입장이 당신과 도민의 생활과의 관계, 신당 철폐의 이면적 배경, 그것을 통한 행정적 의도 충족 내지 관리로서의 권력 비상의 잠재적 의도와 관계 있음을 살폈다. 이제 이 점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설화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5. 갈등 구조와 그 극복

2.2.에서 제시한 전설〈가〉~〈다〉들은 퇴치자인 목사(또는 판관)와 퇴치를 당한 당신(또는 뱀)과의 치열한 대립 관계를 그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엮어져 나가다가 결국에는 당신이 승리하는 결구로 이루어 졌다.

5.1. 지배계층과 당신의 대립

전설-〈가〉는, 이형상 목사가 뱀을 퇴치하고 당을 철폐하고 골총을 수리

50) 필자, “蛇神傳説의 考察”, 《民俗學論叢Ⅱ》,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叢, 1982), PP.321 ~ 322.

51) 뒷글 참조.

하였는데, 골총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제주를 떠나 당신의 흉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끝내 당신들은 이목사의 무덤 위에 서려 있으면서 복수를 감행한다는 내용이나, 이 전설은 서런 판관의 뱀 퇴치 이야기, 기전 목사의 골총 치산 모티브에 이목사의 신당 철폐 이야기가 습합되어 이뤄진 게 특징이다. 즉 이런 여러 일들을 이목사의 일로 만들어 버렸다. 전설-〈나〉는, 기전 목사가 골총을 치산하고 신당을 철폐하였는데 골총신의 도움으로 복수를 피하여 제주를 떠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는 이형상 목사는 사라지고 기전 목사가 등장하는데, 신당 철폐 사실은 이목사 일을 빌려다가 기전 목사 이야기에 습합시켜 놓았다. 전설-〈다〉는 시종일관 이목사의 이야기로 짜여져 있는데, 단지 골총 치산 이야기는 기전 목사 이야기를 빌려온 것이다.

이 세 전설에서 골총을 치산하고 신당이나 뱀을 퇴치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서런 판관과 이형상 목사 일이 넘나들고, 기전 목사 일과 이목사 일이 넘나들고, 이렇게 넘나들며 빌어오고 빌려주어 이야기의 통일성을 잃어버린 듯한 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신분이 모두 목사라는 사실이다.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인 이들이 지방 행정 책임자로 부임해서 이 일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건의 주체자가 혼동되면서도 그들의 이러한 신분에는 혼동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사건 주체자의 개인의 문제에 설화 향유자들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계층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목사와 당신(뱀)과의 필연적인 대립 갈등이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신당 철폐는 이형상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사 즉 상층지배 계층의 문제라는 점이다. 여기에 사건 주체자의 혼동의 의미는, 무속 신앙이 지배 계층의 이념이나 윤리관과는 숙명적으로 대립 갈등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골총 치산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기전 목사의 치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데⁵²⁾ 이형상 목사의 일로 설화 향유자들이 이야기되

52) 金鑑翼, 《耽羅紀年》(원제, P.376)에, 목사를 겸직하던 안무사 奇虔이, 주인 없는 시체가 버려져 있는 것을 판관들에게 명하여 매장토록 하였고, 속설에는 그 신들의 음덕

어 지는 것은, 그것이 지배 계층의 윤리와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티브의 차용은 무속신과 지배 계층의 대립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지배 계층의 힘의 강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세 전설 모두가 골총 치산의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 전설에서 주체자는 혼동되거나 사건 내용과는 달리 넘나들지마는, 사건은 일치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말한 골총 치산 모티브가 그렇고, 당신이 철폐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다. 여기에서 골총 치산이라는 지배 계층의 이념과 당신 숭배의 무속 신앙과의 대립 갈등이 항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 전설은 사회 지배 계층인 목사와 골총 치산의 지배 계층의 이념이 화합으로 민중이 신앙하는 무속신과의 대립 갈등이 첨예화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5.2. 권력 비상의 의지

세 전설에 등장하는 목사들은 신당 철폐를 감행한다. 더구나 전설-〈다〉에서는 평양감사로 가라는 걸 마다하고 신당을 철폐하려는 목적으로 제주 목사를 지원한다.⁵³⁾

“제주엔 가면 조금헌 사람은 다 당(堂) 믿어 살곡, 조금헌 사람은 절(寺) 믿언 사니, 농사지어서 살 사람이 없다. (···) 전부 믿는 사람 천지라 노니까 (뿐이므로), 농사질 사람이 없다 허니 이누무 절 오라서 한번 때려 때려부수자고, 전 제주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원 즈식 (무슨 사람이) 제주 뭇 볼 게 이서서 가겠느냐?”

“아니 경해도(그래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 제주목으로 가거라.”

으로 세 아들을 얻고 모두 벼슬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전 목사는 골총을 치산한 목사로 널리 이야기 된다.

53) 《學術調査報告書》7집, P. 103

신당 철폐는 목민관의 행적 의지로 전설에서는 형상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모두 당과 절을 믿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행정과 치민의 문제가 있다. 농사 짓지 않고 당과 절을 믿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힘써 농사지어 살도록 하는 치민의 방향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행정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목사의 신당 철폐 이야기 속에서, 이런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 때는 지주(제주)에 당 오백 절 오백이 있었던 땀디 영천지 목사(이형상 목사)가 들어오란 백성들을 불러내어 일을 시키젠 흥민, 난 절르레(절로) 가루다. 난 당드레(당으로) 가노라 흥니, 아, 이 건 안되겠다. 흥여 절과 당을 부수워 버려야겠구나 흥여서……> 54) 이것은 도민의 신앙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중세 사회의 절대 권력의 주체자였던 목사의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설-〈다〉에서 당신의 위력도 이러한 면과 통한다. 광정당신과 광예당신은 신령이 세여서 누구도 그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 가야 했다. 이 사실은 그 당신이 바로 제주의 절대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마하여 지나가는 게 관례였다. 이미 지배이념에 따른 힘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백성과 관리 간의 거리감에 따른 행정력의 약화, 무당들 세력의 팽창이라는 당시 사회 실정과 통한다. 목사는 추락된 지배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여기에 두 세력이 대립이 극화되고 결국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목사는 당을 지날 때 하마하질 않는다. 일상적 관례를 파괴하는 일이다. 제주 섬 안에서 목사가 하마를 하여 다닐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당신의 흥협은 목사까지도 용납하질 않는다. 목사가 탄 말이 쓰러져 죽는다. 목사가 탄 말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 목사가 죽은 것이다. 목사를 죽게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전설을 만든 민중들이다. 그러나 목사도 패배를 감수하고 물러서질 않는다. 무당들을 불러다 굿을 하게 하고 얼마 후에 큰 뱀이 나오자 목사는 그것을 퇴치해 버렸다. 55) 이렇게 이목사는 신당 철폐에 성공을 한다.

54) 1981. 7.16 일, 안덕면 덕수리 부락에서 이형상목사 이야기를 들던 중 여러 사람이 모여 들어 이야기하는 걸 필자가 직접 들음. (구술자. 윤추월, 박춘화)

55) 윗책, PP.105 ~ 6.

그러나 목사라는 지배력을 통한 신당 철폐 성공은 표면적인 사실에 불과하게 된다. 비록 기록에는, 각 면 마을 유지들이 물려와 성을을 감사하고 스스로 신당들을 철폐하였다고 했으나, 전설은 그것과 전연 상반된 반응을 나타낸다. 표면적으로 신당들은 부숴버렸지만은 민중의 가슴 속에 자리잡혀진 당신 숭배 마음은 없애질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주체자인 민중들은 이목사를 거부한다. 여기에 당신과 이목사의 대립은 더 격렬해 진다.

5.3. 비상의 좌절과 당신의 의지

목사들의 권력 비상의 의지와 민중들의 토속신앙인 당신과의 싸움은 어느 한편의 승리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게 세 전설의 공통된 점이다. 두 세력이 싸움은 승패가 교체되는 중에 어느 한편이 결국은 승리하는데, <가> <다> 전설은 당신의 승리하고 <나> 전설은 승패가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승패의 교체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승○, 패×)

전설- <가> 56)

- ① 목사가 김녕 뱀을 퇴치함 : 목사(○) 뱀(당신)(×)
- ② 뱀의 피 때문에 제주를 못 떠남 : 목사(×) 뱀(당신)(○)
- ③ 골총신의 도움으로 제주를 떠남 : 목사(○) 뱀(당신)(×)
- ④ 이목사 무덤에 뱀이 서려있음 : 목사(×) 뱀(당신)(○)

전설- <나>

- ① 기전 목사가 당과 절을 부숴버림 : 목사(○) 당신(×)
- ② 당신들이 목사를 못 떠나게 함 : 목사(×) 당신(○)
- ③ 골총신의 도움으로 제주를 떠나게 됨 : 목사(○) 당신(×)
- ④ 당신이 복수를 하려 하자 이미 육지에 닿은 후였음(불확실)

56) 뱀은 실제적인 뱀이기 보다는 당신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광정당신도 이 목사가 굶을 하자 큰 뱀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선 필자의 <蛇神傳說 考察>에서 논의하였음.

전설-〈다〉

- ① 의도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신당을 철폐함: 목사(○) 당신(×)
- ② 광정당 앞에서 하마를 앉고 지나다가 목사가 탄 말이 죽음: 목사(×)
당신(○)
- ③ 목사가 당신을 퇴치함: 목사(○) 당신(×)
- ④ 당신이 복수를 하려 함: 목사(×) 당신(○)
- ⑤ 골총신의 도움으로 제주를 떠남: 목사(○) 당신(×)
- ⑥ 아들들이 당신의 흉험으로 죽음: 목사(×) 당신(○)

당신과 상대되는 두 세력은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나는 물리적 힘은 가진 지배 계층인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과 의식을 지배하는 골총신으로 나타난 지배 이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이다. 이 두 세력은 중세 이조 사회를 이끌어왔다. 여기에 제주 사람들의 본래적 신앙인 당신이 대치하게 된다.

승패의 교체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목사가 승리하나 결국에 가서는 당신이 승리한다. 이러한 결말도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의 패배에 물러서지 않는 당신의 그 끈질김이다. 표면적으로는 신당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목사의 일방적인 승리로 일은 끝나 있는 것이다. 사실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런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즉 목사들이 제주에 와서 풍속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신당을 철폐하였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목사의 승리에도 전설은 당신들의 끈질긴 투쟁을 말해주고 있다. 당신들에게는 복수의 일념만이 있었다. 그래서 골총신의 꾀방으로 일이 그르치게 되었음에도 다시 시도하여 결국 복수를 결행한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힘과 정신적 이념이 합치된 거대한 힘과 싸워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결국 복수를 통한 승리를 얻게 된다. 여기에 무속신의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곧 민중들의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곧 목사에 의하여 자행되는 신당 철폐에 대한 비판 의식 내지 부정 정신에서 연유된다. 왜 신당 철폐에

대하여 그러한 의식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신당-무속신앙-이 민중들의 정신적 뿌리였기 때문이다.⁵⁷⁾

이 점은 광정당 등 신령이 센 당 앞을 지날 때 모두 하마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목사에게도 하마하도록 권유한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민중들의 상상력에 의한, 이러한 현실과의 대치 양식은 삶의 황폐함이 극심하고 상황이 경직됨이 심화된, 직설적인 비판이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일수록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것만이 민중들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생활에 뿌리를 내린 당신이 절대 권력자인 목사에 의하여 철폐된 사실은 민중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적 사건이었다. 충격적일수록 민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나 이데오로기와는 전혀 이질적인 관계, 오히려 상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중들은 무속신의 복수 모티브를 차용하여 이목사를 패배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골충신 때문에 일차 실패하게 되면서 승리와 패배가 연속되는 이야기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승패의 교체 플롯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재미를 만드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무속신의 끈질긴 복수 일념을 나타내면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생명력은 무속신이 뱀신으로 나타난 것과도 관계가 깊다. 뱀은 생명력이 화신으로 설화에 나타난다.⁵⁸⁾

설화가 보여준,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바로 현실에 대한 내면적 반응의 한 양상인데, 이것은 역사 이해를 위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바로 역사와 문학과 관계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57) 이 근거는 이 글의 한 대목(3.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신당)에서 논의하였다.

58) “蛇神傳說 考察” 참조.

6. 진실의 해명으로서 역사와 문학

역사나 문학은 다같이 인간의 진실을 해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사 전자가 역사 또는 집단적 구조 속에서, 문학이 보다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진실을 해명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도달점은 인간 그 자체에 있다. 그런데 역사의 구조 또는 집단적 구조에서 인간의 진실의 해명이라는 문제에 있어, 역사나 집단이 그 속에 소속된 모든 인간을 전제로 하지 못하고, 그 대리자라 할 수 있는 어떤 이념, 소수로 구성된 계층만을 전제하여 버릴 때, 역사는 스스로 그 임무를 포기하게 되고, 문학이 오히려 역사의 취약점을 보충해주거나 더한 경우 문학이 내던져버린 역사의 영역을 파고들어가는 일을 맡게 된다. 더구나 폐쇄된 사회에서의 역사는 그 시대의 지배 이념 속에서 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수록 문학의 역사적 사명은 문학의 몫 이외 역사의 몫까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상상력에 의한 문학 작업이 상황적 제약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역사 이해에 있어 문학적 상상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가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빌려온 자료는 사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 기록이나 유물 같은 것을 예로 들더라도, 나타난 자료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전체 자료의 그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기록인 경우, 그것은 기록자의 주관에 의하여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 이뤄진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상황은 사료의 성격을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모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료라는 게 주관성, 선택성, 상황성 때문에 그것 자체도 문학성을 면치 못하므로, 그것은 결국 역사적 진실(神만이 아는)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여기에 역사 이해에서 지혜가 요청된다. 즉 사료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사료의 의미가 확충되고 보다더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는 고도의 상상력과 인간적 공감을 통하여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사료를 가지고도 바람직한 역사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역사는 문학성을 배제할 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⁵⁹⁾

상상력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역사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역사가의 안목을 확대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역사가의 일은 개별적인 사건을 나타내 주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엮어놓는 과정에서 역사의 맥락을 이뤄놓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사료 해석 능력으로서 視野의 문제이다. 시야는 사료를 역사적 안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사료의 상황성과 주관성, 그 선택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료를 낱개 한 사회적 상황의 인식, 사료의 주체자의 주관성 검토, 선택되지 않는 사료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을 통하여 역사는 보다 새롭게 확인될 수 있다.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를 논의할 때, 소위 사료로 인정되어온 기록만을 가지고 해석할 경우 문제가 대두된다. 그 기록의 상황성과 주체자의 주관성을 검토할 때 그것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인 설화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설화의 역사적 의미가 새로와질 수밖에 없다.⁶⁰⁾ 문학가나 역사가의 상상력은 그들의 모든 경험이나 또는 역사적 경험의 제의미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목사의 치적에 대하여 기록의 사료에 의한 긍정적 평가나 설화적 자료에 의한 부정적 인식은 서로 양립되어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질 때 비로소 그 당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민중과 지배 체제의 대립적 상황에서, 이목사의 신당 철폐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했을 때, 단순히 풍속 개량과 백성의 교화란 입장만이 아니라 행정력의 강화, 목민관으로서의 자기 의지 실현이란 보다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기에 민중과의 갈등을 배제시킬 수 없게 된다. 수 세기 동안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혀진 무속신앙이 외부의

59) 車河淳, 원글, PP.3~9.

60) 설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되었다. 조 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PP.409~449.

물리적 힘에 의하여 철폐될 때에, 기록에서 처럼 긍정적인 반응만이 있을 수는 없다. 설화에 나타난 갈등 양식은 바로 당시의 상황에서의 민중의 경험과 의식을 기록 이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의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전설들은 역사적 기록이면서 하나의 허구이다. 신당을 철폐했다는 것은 사실적(factual)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兪驗에 의하여 목사들이 화를 당했다는 일은 허구적(fictional)이며 상상적(imaginative)이다. 그런데 이들이 질서 있게 구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뤄놓았으므로 이것은 바로 역사적 전설이 된다. 이것은 과거의 현실(past actuality)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며 전설의 향유자들은 그 재현의 진실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이론적 설명이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설명적 기능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경험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또다른 하나의 인식도구(cognitive instrument)인 것이다.⁶¹⁾ 신당 철폐에 따른 여러 전설들의 허구성은 과거 사실의 진실된 재현을 위하여 작자(대중)가 선택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설화를 만든 민중들이,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숨김없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로 만든 역사 감각이, 그 이야기를 즐기며 전해온 향유자들의 역사 감각과 일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역사 감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그것과도 상통하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가 비록 비사실적인 허구임을 알면서도, 역사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들은 시대를 초월한 공통의 역사의식, 즉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대립 갈등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이뤄졌기 때문이다.

설화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진 전통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설화의 소재는 문학적 전통과 보편적인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선택되고 여과되어 형성된 것들이면서 바로 향유 계층

61) Louis O. Mink, "Narrative Form as a Cognitive Instrument," in Robert H. Canary and Henry Kozichi, eds, *The Writing of History* (1978), pp.130 ~ 131.

의 의식에 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학이면서,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역사적 진실보다 더한 인간 정신의 역사물이다.⁶²⁾ 문학은 증거를 넘어서 현실과 역사를 재구성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증거 밖에 그 위에 보다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살리는 일은 바로 문학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결정론적인 역사에 대하여 가끔 비판적인 태도를 내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러한 역사에 대해 반역사적 반이념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감각을 항상 필요로 한다. 문학의 발전은 결정론적인 모순된 사회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비평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는 N. Fry의 말은 이런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⁶³⁾ 그러한 실례를 우리는 제주라는 한정된 좁은 지역에서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준 전설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2) Lionel Gossman은 서사시를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Voltaire의 입장을 말했는데, 설화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Gossman, "Literature and History", in Canary and Kozichi, pp. 10 ~ 11.

63) 李泰東, "文學의 歷史性", 車河淳 등, 硯, P. 85.